

發刊辭

人間의文化는 時代의 變遷에 따라 改替되는 것은 古今의 常例로 생각합니다.

우리 車柳兩姓은 同源異派로 羅、麗、鮮 三朝를 通하여 簪纓이 繼出하고、令德이 接承함은 國史野乘이 歷歷히 證明하는바 再論을 不要하는바입니다.

그러나 그文獻이 擧皆難澁한 漢字記錄으로 二十世紀 現代에는 날로 死藏의 度を 加하고 있음은 否認치 못할事實입니다。 그러므로 何姓何門을 勿論하고 古代文獻의 現代화가 切實히 要請되는바이나 事巨力綿으로 着手에 難色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나 所懷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斷言하여 마지않읍니다。

回顧하건대 數年前 우리先祖 大丞公 妥靈所인 光山 『大東祠』境內의 墳墓紛糾의 不詳事를 契機하여 一汕柳化烈宗의 爲先彈誠으로 大丞公 誕辰卽期하여 全國宗員의 參拜下에 『車柳大宗會』를 創設하고 全南一圓에 市、郡單位로 支部組織을 完遂할때 不肖宗末이 大國會副會長兼 本道會長の 자리를 맡게 된 것은 도리혀 悚懼의 感을 難禁하는 同 時에 責任의 重大함을 深覺하여 微力이나마 爲先敦族에 最善을 다할決心下 宗弊를 止揚하고 費用을 先擔하여 總會에서 決議된 車柳兩姓의 各派顯祖의 文獻을 拔蒐改譯하고 附錄으로 宗員名鑑及 宗史參照上 必要의 資料를 收 集하여 『車柳大宗史』 編纂에 着手한지 二年有餘에 多幸히 完成을 告케 된 것은 오로지 宗員 僉位의 協助의 結晶이라고 생각하여 感謝의 뜻을 謹가表하는바입니다。

더욱히 本宗史編纂의 責任者인 一汕柳化烈宗은 多年教育界 出身으로 斯界에 造詣가 깊을뿐 아니라 爲先熱誠이 深篤하여 家事를 不願하고 拔蒐改譯과 經費調達에 貢獻이 至大하였음은 衷心으로 敬意를 難禁하는바입니다。

끝으로 我國漢文改譯의 本宗史가 東邦譜史의 新紀元이 될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全國宗員의 愛用을 받아 崇祖睦族의 美風釀成에 寄與된다면 위로는 祖先에 對한 報本의 懿行이 될것이오 아래로는 後孫에 對한 垂範의 貽業이 될것으로 믿어 널리 江湖 僉宗에게 本宗史의 備覽을 謹가勸獎하는바입니다。

一九六六年 一〇月 一〇日

車柳大宗會全羅南道本部會長

車柳大宗史編纂委員會會長

大丞公三八代孫(文節公派)

車

行

七 白

머 리 에 붙 이 는 글 (序文、代數順)

옛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일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찾아내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음을 것이다.

인류의 한 분자도, 한나라와 한 겨레의 일원으로, 그리고 핏줄을 이어나려준 조상들의 자손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일이 아닐수없다.

근래에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고 바빠졌다고해서 자기가 어떠한 누구의 자손이라는 혈통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인간으로서의 타락이라고 아니할수없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의 차류중회에서 뜻 있는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정성을 모아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차류대중사』를 엮어서 낸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며 뜻 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의는 물보다 진하다』는 금언이 있다. 이것은 천고의 진리인 것이다. 한 핏줄을 이어 받은 자손들이 깊은 사랑과 따뜻한 정리로 서로 돕고 가려주고 아껴서 날로 번영하고 발전해 나가는 일은 옛 조상들과 오늘날의 우리들과 훗날의 자손들의 한결같은 념원인 것이다.

오늘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엮어진 이 차류 대중사는 차류의 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이룩하는데 큰구실을 하게될 것이다.

아득한 옛날로부터의 기록임으로 희미한 곳도 적지 않고, 잃어버린 사적도 많겠고, 또 잘못 전해진것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것 들은 종회의 발전에 따라 점차로 바로잡혀져 갈 것이며 또 앞으로 허다한 찬란한 기록이 보태어 실려서 점점 빛을 더해가게 될것이 틀림 없다.

끝으로 고마우신 조상들의 높은 덕을 사모하며, 오늘의 우리 차류 종인들의 번영과 발전을 축원하며, 앞으로 태어날 무수한 후손들의 영광을 빌면서, 책머리에 삼가 이 글을 붙이는 바이다.

一九六六年 一月 五日

서울 대학교 교수

재건국민운동중앙회장

차류대중회명예회장

대승공(二九대손)문숙공파)

유

달

영

序

萬波之水가 始於一源하고 千枝之木이 本乎一根故로 溯源繹根則 派幹이自明은 理之固然耳라 謹按吾先이 上自軒
皇으로 傳至夏禹하고 至諱祖明하여 始入東邦而 居于平壤타가 至諱無一하여 東遷慶州하고 傳至諱承禧公而 至于大
丞 諱車達公하니 其間 姬、妣、王、車、柳 五姓相系而 系代一百有八에 歷年三千六百有十二하여 代久年遠이나 系統이昭
然하니 呼其盛矣로다。

於戲라 大丞公이 贊翊麗祖而 克成統一以後로 累蒙朝家 賜姓分封之榮典하여 車柳立宗而 柳則仍貫文化之後에 別
有三山二州之分하여 麗鮮千年間 賢相名將과 碩儒高士가 迭世踵出하여 偉業崇績과 高風卓節이 光被史策하고 恩洽
八域하여 世稱三韓望族이오 萬姓巨宗이 豈其虛傳哉리오。

然이나 世代漸遠에 兩姓後承이 蕃處遐土하여 宗支之別과 昭穆之序를 難以明辨而 但以呼宗으로 殆同路人하니 曷
勝歎哉아 且兩家譜乘이 世世繼傳하여 可謂至備나 但緣於難澁하여 未得全解故로 未需現世之要請하고 難副來後之備
徵하니 所謂玉埋於塵이오 珠沒於泥로 未發本然之眞價하여 死藏之憾이 莫甚於此矣리니 歲在甲辰秋에 因大東祠境內
墳墓紛糾之機而 創立『車柳之宗會』하여 乃營崇祖敦族之業而 期收報本培倫之績하여 以其初段事業으로 族侄化烈이 振奮
懿行而 爰幹其事하여 招致斯界之能士하고 廣收各派之文獻하여 拔蒐改譯하고 且附諸般參考文徵而 始克成篇하여 號
曰『車柳大宗史』而 請余短序키로 感化君之彈誠하고 荷諸宗之協贊하여 義不敢辭而 不揆蕪妄하고 敢搆拙詞하여 盟手叙
題하니 僭溢罔極耳로다。

斯史也體裁有序하고 譯解簡明하여 因流而溯源하고 緣枝而尋根則 一祖萬孫이 百世同案하고 千載先德이 瞭然感現
하여 孝悌之心과 敦睦之誼가 油然而湧하니 此非但爲 兩門壽傳之珍乘이라 亦以助邦家風化之一助니 欣幸何極가。

兩宗雲仍은 墨守家傳之忠孝하고 勉行世垂之節義하여 齊家處世에 孝信並至하여 繼述無替則 上可以答 祖先之遺志
오 下可以垂 啓牖之懿範而 門祚之隆이 益將無窮於後世矣리라。

歲在 丙午 夏

大丞公三〇代孫(侍郎公派) 柳 景 植 謹序

序

우리 車柳兩氏는 高麗朝의 大丞公 柳車達先祖의 子孫으로서 海東의 大姓으로 千年의 歷史를 지닌바이다. 特히 高麗太祖王建의 王后이신 柳氏는 太祖를 도와 國家創業에 偉蹟을 남기시었고 朝鮮王朝의 左相柳曼殊公께서는 王朝創業에 柱石의 任을 다하신바이다.

夏亭柳寬公께서는 清廉宰相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左議政柳灌公께서는 外戚의 執權에 抗하여 國家를 부들려다가 乙巳土禍에 被禍하신 記錄을 남기었다.

三百七十年前 壬辰倭亂때에 西厓柳成龍公은 名宰相으로 八年의 國難에 當하여 內治와 外交에 偉大한 功勳을 남기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穆陵盛時의 燦然한 文章으로는 五山車天輅公이 제시고 外交로는 丁酉再亂에 對明外 交에 血誠을 다한 文興君柳思瑗公이 제시다.

最近世 筆者의 高祖父인 三希齋柳轄公은 正祖王의 知遇를 받아서 文章과 學行이 뛰어난 분으로 그의 著述로는 우리 나라 歷史인 東史 中國의 明史等이 있는데 그 分의 抄本을 保管하였다가 六、二五戰亂에 紛失된 것은 筆者의 畢生의 痛恨事이다.

우리 車柳宗中 特히 全南宗中에서 柳化烈同宗이 泯滅、逸失하기 쉬운 이 車柳兩氏의 文獻을 모아서 大宗史를 刊行한다 하기로 의람히 拙筆을 들어 贊賀의 몇 마디를 써서 序文에 代한다.

大概 國家의 王朝나 政權은 때를 따라 興替하나 民族은 永遠한 것이오 이 悠久하고 永遠한 民族의 成長、發展도 實相은 宗族을 中心으로 擴大되는 바이니 이번 刊行되는 車柳大宗史도 우리 宗史인 同時에 民族史의 一部分임을 생각하여 그 意義가 자못 크다고 느끼고 推獎하는 바이다.

一九六五年 十二月六日 大雪전날

서울內需洞 雲深閣에서

第五代 韓國 國民會議 委員 韓 國 日 報 論 說 委 員

大丞公三一代孫(府尹公派)

柳 光

烈 謹識

序

어느 聖인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無에서와서 無에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나 이 말씀은 層次元이 높은 이야
기고 實際에 있어서 우리는 先祖의 罪와 遺産을 받아서 그것을 더욱 빛내고 發展시켜 後孫에게 이어 물려주어
야하는 由來와 行方이 뚜렷하고 責任과 義務가 自명한 存在인 것이다.

車柳兩姓의 先祖들은 偉大했고 훌륭했었다。忠義에 살았고 節介를 지켰다。新羅朝에서도 高麗朝에서도 李朝에서
도 그랬었다。倭政에 抗拒하는 鬪爭에서도 남한데 뒤지지 않았다。이렇한 先祖들의 活動과 業績을 우리들이
되새겨 보는것은 말할수없는 보람이요 자랑이다。 또한 自信과 激勵을 얻게된다。 그리고 責任感과 義務感을 느
끼게한다。

어찌하여 車氏와 柳氏가 同祖同根인 같은 血統의 後孫이 되는것이며 왜그렇게되었는가 하는 事實만 알게되
라도 正義感에 불타고 勇敢하고 生命을 草芥같이 여기고 不義에抗拒하여 鬪爭하던 先祖의 그 불은 피가 나의 血
管에 脈脈히 이어서 흐르고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는것이며 그 高貴한 피를 辱되게해서는 안이 되겠다는 覺悟가
생기는것이다。

이제 全南에 계시는 宗門에서 우리先祖들의 事蹟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엮어 世上에 내어 놓는다고 하니 오
랫동안 기다리던 事實이 이루어지는것이며 그 意義는 비단 우리宗門안에서만 끝나는것이 아니고 우리世代와 우리
後孫들을 奮發激勵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것으로알아서 이事業을 推進하신 關係人士 여러분 들에게 고마운마
음을 禁할수가 없다。

一九六六年 十一月 三〇日

經 濟 學 博 士
農 林 部 長 官

大丞公三八代孫(文學公派) 車 均 禧 謹識

序 〔晩着으로追録〕

先德을 闡揚하고 家風을 繼述한은 子孫 當然의道理요 士子 本然의 責務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그러므로 그氏族의 盛衰는 이 闡揚의도와 繼述의 蹟으로써 반드시 考證할수있는 것임으로 古來로 祖先의 達官偉勳과 高德卓行을 譜乘에 記載하고 後孫에 傳授하여 그 遺風餘韻을 體得踐行하므로 世俗을淨化하고 家風을振作하여 國脉培養에 寄與하였는것은 自明한 事實로서 누구든지 否認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車柳兩姓은 同枝分葉으로 麗鮮千年間 名公巨卿과 鴻儒宿德이 連綿繼承하여 國史에 光輝를 增發하고 世俗에 淳化를 招致하여 그 遺澤餘蔭이 八域에 普洽하였음은 史乘이 昭證함으로 再論을 不要하는바이며 더우기 兩家文獻이 遞傳繼備된것은 兩門의 一大矜持로 自負感을 難禁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이文獻이 全部 難解한 漢字記錄으로 現代의 需要에 副應치못함을 恒常 遺憾으로 생각하던中 今番 全南宗會에서 會長 車行七、事務局長 柳化烈 兩宗丈의 深篤한 爲先懿行과 全南僉宗의 報本協贊으로 兩姓 各派의 顯祖文獻을 國漢文으로 拔萃改譯하고 其他 諸般要錄을 蒐集添附하여 『車柳大宗史』를 編纂케된것은 참으로 兩門의 將來를 爲하여 無上의 欣幸인 同時에 世道敎化에도 반드시 좋은 影響이 및일것으로 믿어 마지막을입니다.

이 改譯한 文獻을 宗史로써 志名한것은 歷代祖先의 事實을 正確히 記述한것으로 解得이 簡易하고 體系가 整然하여 孝悌의心を 釀成하고 敦睦의誼를 扶植함에 龜鑑의役과 基礎의標가 될것을 確信하는바이니 이는 兩門壽傳의 寶鑑일뿐아니라 나아가서는 邦家風化의 敎本이됨에 遜色이 없을것이라고 思料하는바입니다.

願컨데 江湖 僉宗께서는 이宗史를 備覽實踐하여 內로는 齊家垂範에 寄與하고 外로는 處世措行에 照鑑한다면 子孫으로서 報本裕後の 重責完遂에 반드시 一助가 될것을 삼가 믿어 마지막을는바입니다.

檀紀四二九九年 三月 二〇日

柳 韓 病 院 長
柳 韓 電 子 社 代 表
柳 哲 製 藥 會 社 長

大丞公三〇代孫(忠景公派)

柳 根

哲 謹識

編纂의經緯

謹啓時下 秋末冬初의 收藏季節에

僉宗體候 大安하심을 仰賀且祝 하나이다.

就棟

先祖 大丞公 妥靈所인 全南光山 『大東祠』境內 墳墓紛糾의 不詳事를契機로 本孫及士林의 是正促求의 聲援이 藉藉할때 祠宇所在地에 居住한 後孫된 責務로 宗末化烈이 收拾打議次로 遽然上京中에 松齋柳景植宗丈(現柳炳賢將軍親父)의 爲先誠意에 敬服되어 隨示補佐로 阻勉半年에 豫想外의 全國的인 組織體로 發展되어 宗員僉位의 愛顧로 大宗會理事兼 本道事務局長으로 編纂總責의 過分한重任을 맡게된緣由로 오늘 猥濫한붓을 들게된것은 宗末로서는 無上의光榮으로 생각하는 同時에 一便 恐懼의感을 禁치못하는바입니다.

回顧컨대 松齋宗丈의 爲先衷情에 在京宗親이 感服되어 相互協助하던中 特히 柳韓病院長 柳根哲宗丈의 不斷한幹旋으로 서울에 既設된 『車氏花樹會』와 『柳氏大宗會』의 兩會長인 車赫誠 柳和靑宗丈의 協議로 兩宗會를 發展的으로 解體하고 全國 『車柳大宗會』를 結成키爲하여 京鄕各地의 有志宗員이 客年十月三日(陰八月二十八日) 意義깊은 鵝沙先祖의 誕日을期하여 祠宇所在地인 本道에會同하여 追慕行事와 宗會創立을 갖게된것은 我門史上 初有의 一大慶事인은 自他가 共認하는바였습니다. 더욱이 同會에서는 行政區域單位로 道、市、郡까지 有機的인 支部組織과 아울러 上兩旁風의 蕭索한 祠宇重修와 未備된 東西齋建立을 大宗會 一次事業으로 決議한것은 吾宗의 報本敦族의 標的인은勿論 一般社會의 勸善化俗에도 一助가될것을 믿어마지않읍니다.

그러므로 本道에서는 宗會 發祥地로서 以上の 先驅的인役割을 完遂키爲하여 道組織을爲始로 本道傘下의 五個市、郡支部結成을完了하고 有機的인 推進實況은 他族의羨望과 稱譽를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過去를 回想컨대 自他宗族을 莫論하고 門事舉皆가 各派의軋轢과 有司의挾雜으로 有初無終의 結果招致를 前鑑삼아 本道에서는 幹部相互間 報本睦族의 理念實踐으로 會長車行七宗丈의 物心兩面의 格別한協助과 傘下各支部會長 僉宗의 不斷한努力으로 全南 六千餘世代의 宗員名鑑 原稿蒐集이 完了되어 各派史料의 公正拔萃를 期하여 顯祖의事蹟과 아울러 本事業을 더욱 빛내기爲하여 大宗會以下 各道本部 任員名單과 全國的인 各界의著

名及 有功宗親의名單、人物紹介等 其他 宗史參照上 必要事項을 收錄하여 『車柳大宗史』를 四、六倍版 三〇〇頁爲計로 目下三、〇〇〇部를 印刷中에 있습니다。

以上과如한 重責을負荷한 宗末化烈은 本是 薄學非才의 海陬生長으로 敎職에從事한 關係上 見聞이偏狹하고 力量이淺少하여 斯業克成에 夙夜恐懼의 衷心을 難禁하오나 爲先丹誠만은 他宗에 不讓할것을 自負하면서 晝夜心血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各派의文獻을 備置하고 斯界의有能人士를 顧問잡아 難澁한漢字文獻이 時代的으로 死文化된 先祖史蹟을 國漢文으로 拔萃改譯하여 現代潮流에 適合토록 試圖完刊하여 讀者後孫으로 하여금 祖先에 對한 欽慕敬仰의感興에 寄與할것을 衷心으로 祈願하옵고 來十二月一〇日內로 終刊企圖中 左記와如히 依賴하오나 伏願 僉宗은 時期促迫한感을 十分照鑑하여 本道任員의熱誠과 不肖宗末의丹誠을 諒察하시고 斯業勸獎의 惠量으로써 十一月二十日까지 郵送하여주심을 千萬仰願하나이다。

西紀一九六五年十一月 日

宗末 柳 化 烈 謹白

記

- 一、各派顯祖의 事蹟及 祠宇、齋室、樓亭寫眞各一枚
- 一、別添名鑑 原稿樣式에 依據한 名單及 名脚寫眞一枚

貴下

自序

우리 車柳兩姓은 麗朝開國元勳인 鵝沙大丞公의 高博深遠한 遺蔭餘澤으로 麗鮮兩朝를 通하여 名相賢輔와 高學碩德이 連綿繼承하여 千有餘年の 東國史乘에 一抹의 光輝를 添發케 한것은 누구나 否認치 못할 事實입니다.

더우기 公의 長次男이 車柳兩氏로 分姓되어 長房車氏는 大匡延安君 後에 文學公、典書公、月波公、松林伯公의 四派로 分離繁衍하였고、次房柳氏는 左尹公 後 八世에 甲、乙兩派로 分離되고 十世에 豐山、瑞山、善山、全州、晋州의 五貫으로 分派된 六貫의 兩姓後裔가 其麗不億으로 至今 八域에 遍衍된 現狀은 事實의 歷歷히 證明함으로 다 시贅說을 不要하는바입니다.

그런데 去番 大丞公 祠宇 『大東祠』所在地인 全南光山에서 墳墓紛糾의 收拾을 契機로 車柳兩姓의 『大宗會』를 創設하여 崇祖敦族의 美風을 宣揚하고 報本化俗의 彝德을 培養코저 本道宗會에서는 첫 段階의 事業으로 『車柳大宗史』를 發刊키로 決定推進하였으니 그概要는

第一 史蹟編은 祖先의 史蹟을 編蒐하여 그의餘韻을 追慕하므로 敬欽의純情을 涵養하여 觀德瞻拜의 意慾을 培養할것을 目的으로 하였으며、

第二 文獻編은 車柳兩姓의 系譜를 圖表로 製成하고 祖先의 事蹟을 略記하여 分派內譚을 明示하였으며、上系의 顯祖及各派名祖의 事蹟을 公正拔萃하여 難澁한 漢字文獻을 國漢文으로 改譯하고 또한 派別로 各分하여 讀者의 解得便宜에 寄與하였고、科榜考는 國朝榜目を 臚本하여 原文改譯으로 考證參照에 提供하였으며、過去 祕藏된 遺墨及 其他史乘을 蒐錄하여 그의鴻功偉烈과 高行碩德을 闡揚追慕하므로 子孫各自의 矜持를 培養하고 人格完成에 照鑑供與할것을 指標로 삼았으며、

第三 名鑑編은 全南道本部、各市、郡支部任員及 地方宗員의 分布現況과 各自未詳한 昭穆을 明記하여 一枝萬葉의 根本을 表示함으로써 崇先睦族의 觀念을 培養하고、他道와도 敦族紐帶를 強化키爲하여 各道任員、有功 및 著名宗員의 名單을 登載하였으며、특히 寫眞人物紹介는 偏頗的인 感이 있으나 著名及 有功한 特殊宗員에 있어서는 車柳兩門의 繁榮誇衎과 門內後進의 模範垂示에 寄與코저 하였읍니다.

附錄은 歷代 祖先事蹟의 研究參照에 一助가 될것으로 思料되어 麗鮮兩朝의 王室世系表及 制度沿革表 等を 記

錄하여 宗史參考에 便宜를 企圖하였읍니다.

回想컨대 宗末이 淺學菲才의 海隅生長에 多年敎職에 從事한 關係로 見聞이 偏狹할뿐 아니라 祖先의 文獻研究의 機會도 갖지 못한 處地임에도 不拘하고 以上과 같은 重任을 負荷케 된 것은 趣旨文에도 仰陳한바와如히 宗員僉位의 爲先至誠과 愛族衷情에 敬服되어 宗會創設以來 滿二年間 家事를 不顧하고 오즉 熱과 誠으로 夙夜盡瘁

中 光州市內에서 市政、敎育、商工、體育의 各方面에 知名한 後巖 車行七會長의 物心兩面의 協助를 爲始하여 前全南通運支店長 芳軒 車南術宗丈의 聲援으로 本 刊行事業을 發足케 된 것은 敬荷의 念을 難禁하는바입니다.

宗史編輯에 따라 國漢文 改譯部分은 該博한 識見과 能란한 技術、公正한 史眼과 洗練된 修辭가 要請됨으로 史學에 造詣가 깊은 各派 代表 編纂委員의 監修下에 斯業을 克成케 된 것은 欣幸으로 思料하는同時에 感荷의 念을 不勝

하오며、
國寶的 史家에 言論家인 前 第五代國會議員에 現 韓國日報論說委員인 柳光烈宗丈과 國家的으로 著現한 서울大 敎授 兼 國民運動中央會長 柳達永宗丈 및 經濟學博士에 農林部長官인 車均禧宗丈外 儒學家인 松齋 柳景植宗丈과 醫學界

에 有名한 柳根哲宗丈의 序文이 登재케 되어 錦上添花의 誇示가 될것을 믿어마지 않읍니다.

끝으로 이 刊行이 時日促迫으로 蒐輯改譯에 萬全을 期치 못하여 疎漏한點이 많을것을 自認하오나 오즉 宗末의 爲先誠意만을 下鑑하시고 寬容의 惠情으로 읽어주신 同時에 誤謬된 部分을 一一히 叱正하여 주심을 삼가바

라하지 않읍니다.

大丞公 誕生 壹千八拾七年 丙午四月拾六日

檀 紀 四二九九年 四月 一六日

車柳大 宗史 編輯室에서

大丞公三一代孫(左相公派) 編者 柳 化 烈 謹識